

## 한국 도자(陶磁)문화의 부흥을 기대하며

광주의 도자문화연구소는 연구기능외에 종합문화사업, 대중문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다방면에 걸친 문화사업으로 도자문화의 질적향상과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졌다. 경기도 이천군의 칠만여평 대지에 건립 예정이며, 우리 문화의 정수인 도자문화를 되살려 대중적이며 수준높은 작품으로 모든 국민이 친숙히 도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연구, 홍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술 도자기 분야와 생활 도자문화 분야를 크게 대별하고 도자기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식생활과 차생활을 연구하여 전통적 도자문화를 오늘날에 되살려 당연히 실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하였던 옛날 도공의 기술과 멋을 담당하고자 한다.

도자문화 연구분야의 생활도자기부에서는 실험공장을 중심으로 최첨단 정보를 바탕으로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에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전통을 현대화한 디자인 등으로 생활도자기의 제분야에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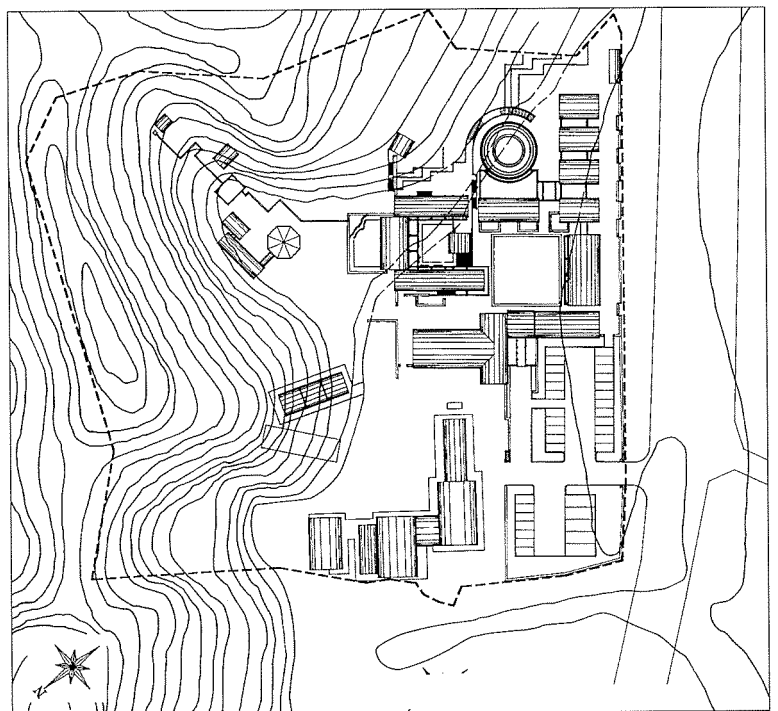
# 광주 도자문화연구소

Institute of Traditional Ceramic W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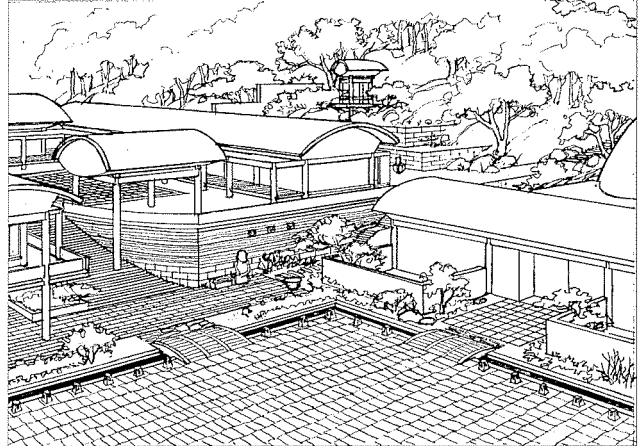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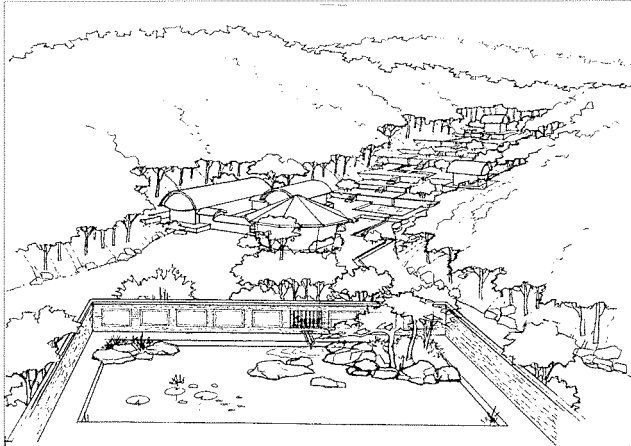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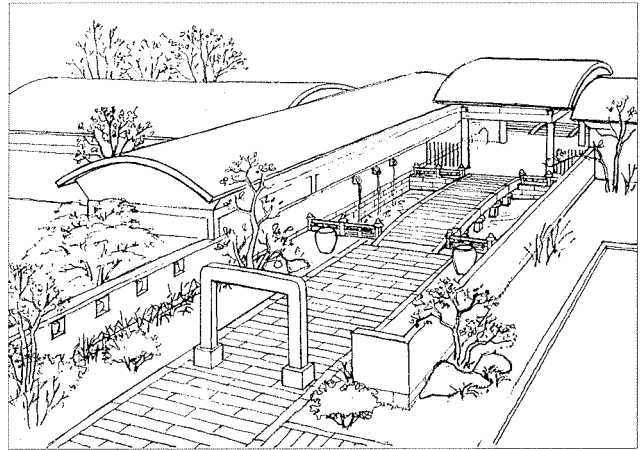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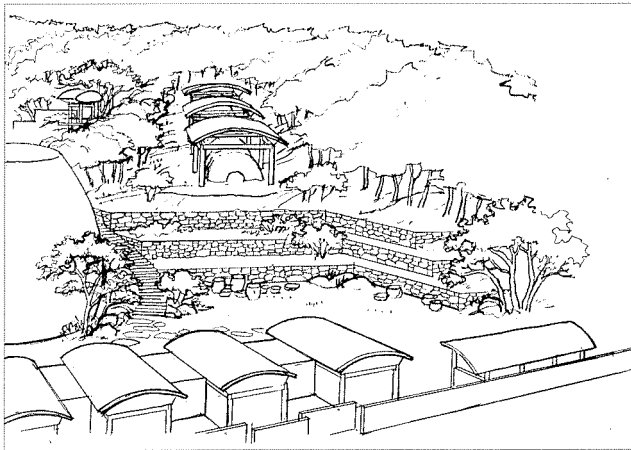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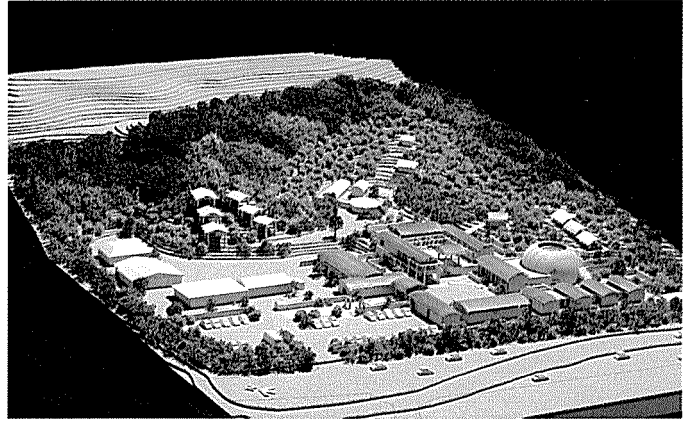
박연심 / 장원건축+동정근 / 인하대 교수

by Park Yeon-shim & Dong Jeong-Keun

도자기는 그간 우리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재 혹은 예술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의 고고학적 보관소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안치된 박제된 문화는 아무리 보존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죽어있는 문화인 것이다. 고여있는 물보다는 생동감있게 흐르는 물이 자체 정화로 맑은 물이 되듯이 생활속에서 유통되는 문화만이 살아있는 문화이며, 발전되어 가고 있다. 땅과 더불어 생활하지 않는 현대 도시생활은 이곳저곳 생활의 방편을 찾아 떠다니는 유목생활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방식도 이동에 유리하도록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어 왔으며, 소유할 필요가 없는 주거 형식도 가족의 독특한 생활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텐트속같이 임시 거처하고 쉽게 적응이 가능한 똑같은 유형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생활도구들도 이동이 용이하고 간편한 형태로 바뀌어 왔으며,



단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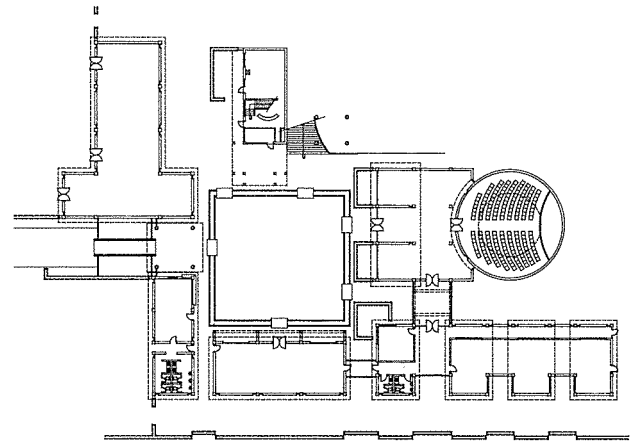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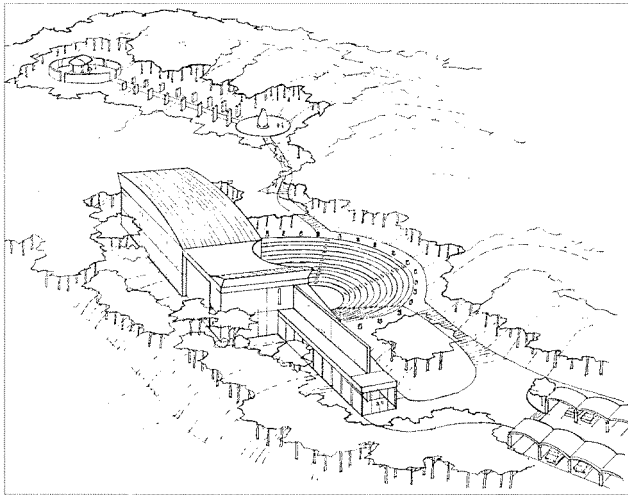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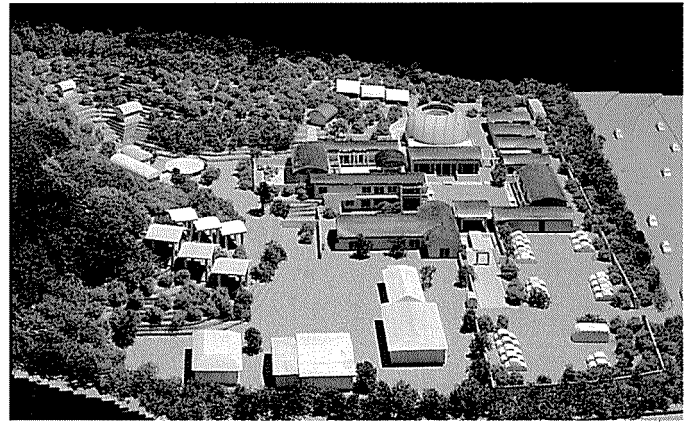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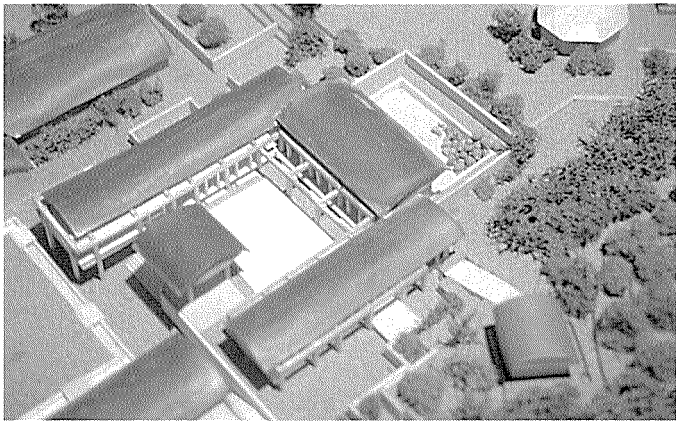


이러한 현대 유목생활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플라스틱 도구들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문화를 「플라스틱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느 형태로도 모조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우리의 생활문화까지도 모조의 문화로 바꾸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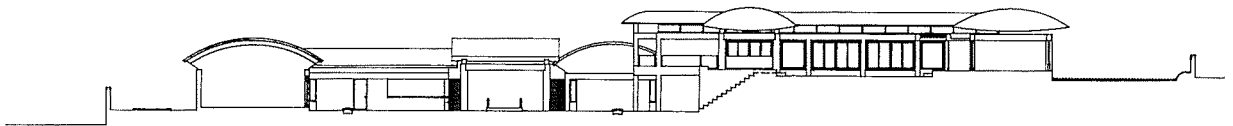
정보화 사회 이후는 생활의 방편을 찾아 이곳 저곳 떠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느곳에서도 이곳저곳과 연결이 가능하게 되며, 어느곳에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 문화, 정치적 접촉도 가능하게 된다. 이후 생활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독특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착생활로 다시 복귀하면서 플

라스틱 문화에서 질그릇 문화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희망이 있다. 주거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주거생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활 문화 전반의 문제이며,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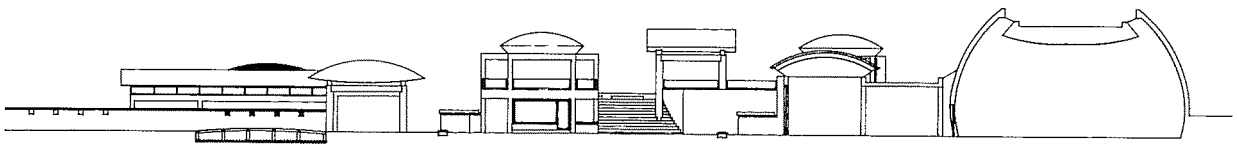
이곳 연구소에는 그린 생활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코스를 계획하고 있다. 공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도자의 예술적 계승을 담당한 도예부분은 전통도자의 뿌리를 찾아 연구, 창조함으로써 환경과 생활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장식품을 위주로 작품을 제작하여 옛날 도자문화를 이땅에서 되살리고자 한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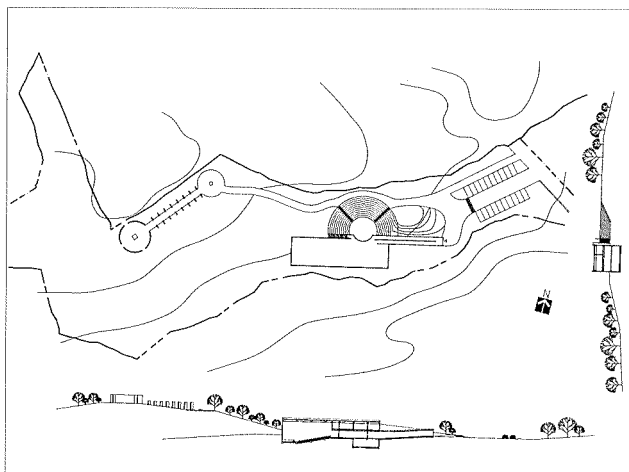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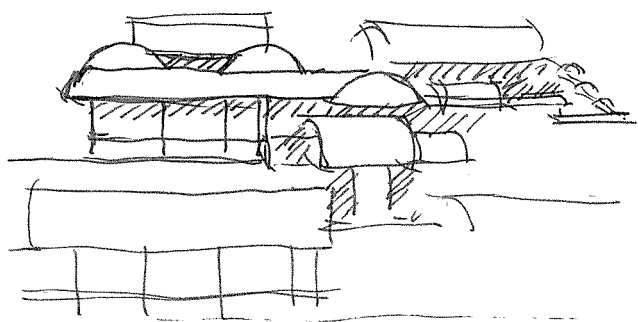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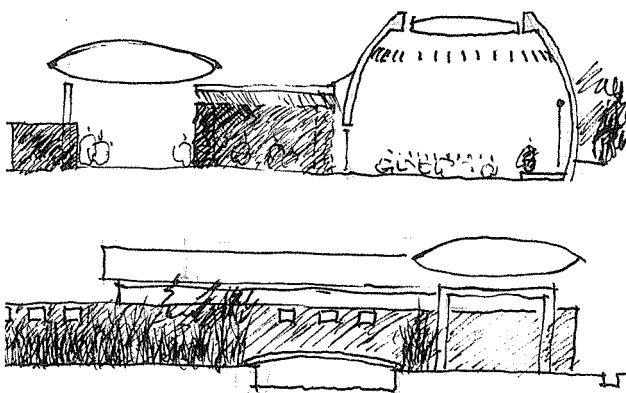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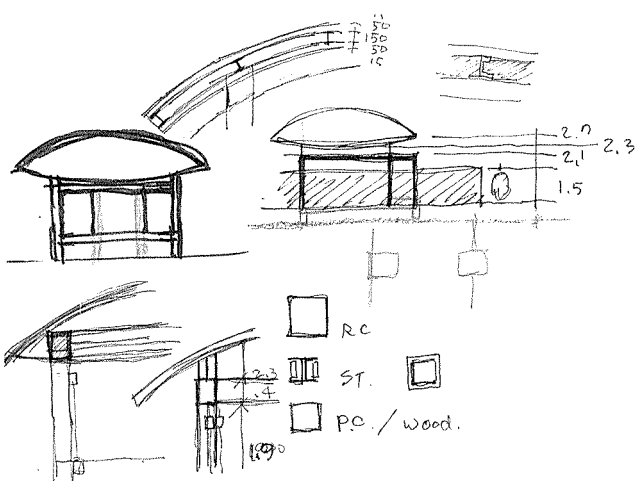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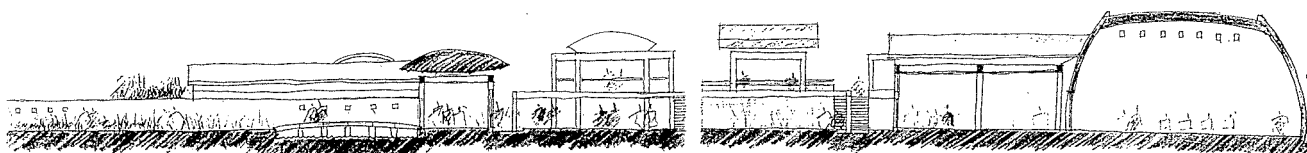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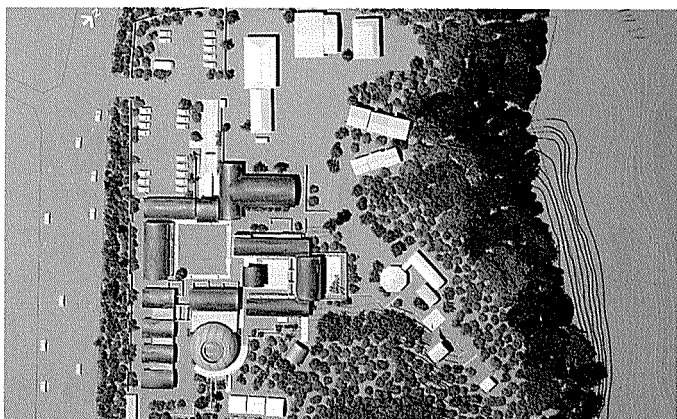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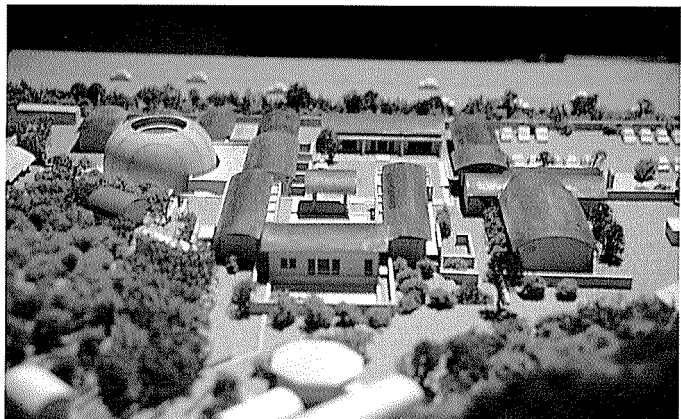
단지 종단면도



단지 횡단면도

한국의 전통적 공간속에서 모임을 갖고 대화하며 전통 음식을 시음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문화연구소와 그리고 차생활문화연구소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로 차생활문화를 교육 보급하여 나아가서는 전통다도를 정립하고 한국차문화 발전을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전통 정원을 되살리고 멸종되는 한국의 야생화를 가꾼다. 도자기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마가 딸린 공방, 작업장과 그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세미나실, 강당 등이 있는 도자문화연구소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 도자기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이 단지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와 차생활문화의 연구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식생활문화와 차생활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보다 국제적 감각에 맞게 연구, 적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전승도자기의 생활화로 이어지며 이는 일제시대의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본연의 것을 찾아서 일반인들의 경험의 장이 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의미와 외국의 손님에게는 이국적 풍물의 풍부함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봄직하다.



이천 도예문화 센터